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4년 12월


선교편지 제 182호



복된 성탄을 시므온과 만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희망찬 새해에도 한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박인호, 이연지 드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 34:3)**

 전세계에서 크리스마스가 가장 빨리 시작되고, 크리스마스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축하하는(?) 나라는 아마도 '필리핀'일 것 입니다. 'BER-Months' 라고 불리우는 9, 10, 11, 12월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의 시작인 9월1일부터 장장 4개월간의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두들 9월 1일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날이 시작되자마자 곳곳마다 요란하게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흥겨운 캐럴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무더위 가운데 듣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이방인에게는 매우 색다른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9월 16일이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고조 시키기 위해, 각 매장마다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100일'이 남았다는 카운트 다운 사인이 걸리기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각종 특별 세일이 시작되는데, 심지어 이슬람 계통의 상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 가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일랜드 켈트족으로부터 시작된 'Halloween' 문화가 있다면, 필리핀에는 '팡안가롤링 (Pangangaroling)' 이라 부르는 독특한 '크리스마스 문화' (?)가 있습니다. 9월부터 거의 매일 저녁, 동네 아이들 또는 청년들이 무리를 지어 각 집 앞에서 캐럴을 부르고 '돈'을 요구하는 '성탄 케롤링' (?)이 시작 됩니다. 이 때를 맞추어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하루 저녁에도 몇 번이고 찾아 옵니다. 마치 누가 이기나 내기를 하듯이 문이 열릴 때까지 노래를 부를 때에는 성탄절의 의미는 고사하고 고통스럽기 까지 합니다.

필리핀의 국교인 가톨릭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모습이 사뭇 생소합니다.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의 기간을 '심방 가비이(Simbang Gabii)' 라고 하는데, 새벽에 열리는 심방가비이 미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활동을 시작하고, 마침내 심방 가비이가 끝나는 12월 24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필리핀 전통 음식인 '비빙카(Bibingka)' 나 '푸토 붐봉 (Puto Bumbong)' 을 먹으며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12월이 시작되면서 디고스 예일교회, 아팔라야 예일교회, 마띠 은혜교회도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세 교회가 처음으로 함께 맞이하는 성탄절인 까닭에, 연합 축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잊은 채 나름의 방법과 이유로 성탄절을 맞이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성탄절로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세주의 오심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만이 구주 되심을 선포하기로 다짐 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 1:21)



금년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 드렸습니다. '디고스 예일교회', '아팔라야 예일교회', '마띠 은혜교회' 와 마띠 교도소의 '마띠 소망교회'까지, 원근 각지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새 힘을 얻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그저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마띠 은혜교회'를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축하는 1년여의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고, 힘들었지만, 이제 마띠 은혜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새 교우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한 마띠 은혜교회 장학 사역에 참여한 20여명의 대학생들의 면면을 살펴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더욱 더 감사합니다. 8년전 장학사역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교회의 든든한 일꾼들로 성장한 것을 기억합니다. 마띠 은혜교회에 새롭게 합류한 장학생들도 말씀에 뿌리를 내려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로 자랄 것으로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마띠 주정부교도소의 마띠 소망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외적인 변곡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재소자들과 함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할 뿐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27명의 재소자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옥중 세례를 받게 하시니 그 감사와 감격이 더욱 더 새롭습니다. 재소자들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끊이지 않지만, 그런 중에도 섬세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더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금년에는,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에 참으로 많은 사고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하나님 나라로 먼저 떠난 교우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고통을 겪었고, 화재로 인해 집 전체가 소실된 가정들로 있었지만, 고난과 역경 중에도 위로와 평강으로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특히 금년 첫 주부터 42주간, 디고스 예일교회의 '수요 기도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목요 기도회'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부족한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선교의 사명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아 계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성령을 통해 교회와 항상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해설교를 마치면서 42주 동안 빠짐없이 출석한 교우들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회중 앞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간증과 고백을 통하여도, 선교의 원동력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테크닉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능력'에 있음을 확인하고, 선교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디고스 예일교회, 아팔라야 예일교회, 마띠 은혜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추수 감사예배'를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풍성한 추수로 인한 감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눈물로 고백하는 감사도 참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면,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본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이 땅에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이며 동시에 영광스럽게 주어질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고백하는 날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하노라 (고후 2:14)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 / 마띠 은혜교회 / 마띠 소망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장학 사역을 위하여
3.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4.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

